

대한민국 **2040**에게 물었습니다

# 출산·양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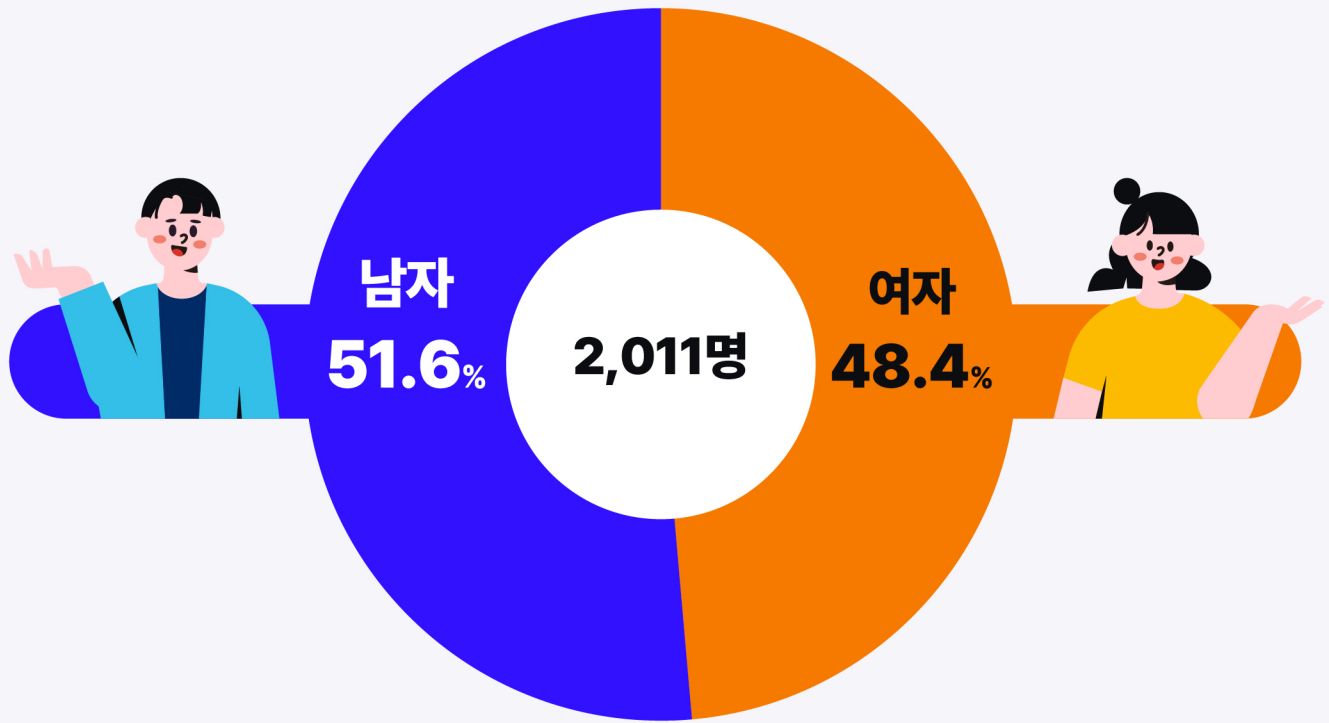
여러분은 어떻게  
생각하시나요?



육아정책연구소  
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

# 만 25~49세 대한민국 국민 2,011명에게 물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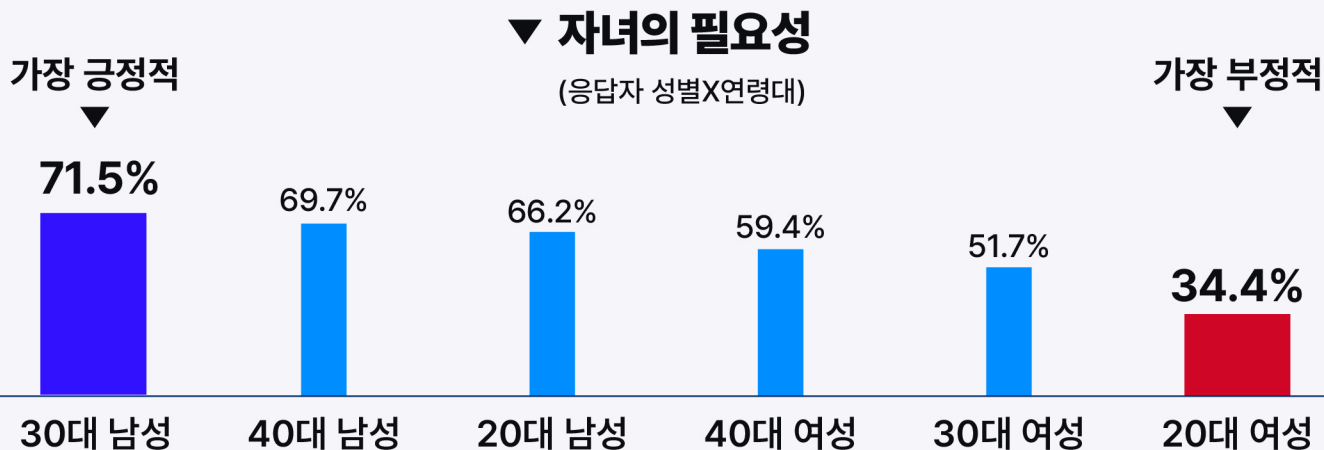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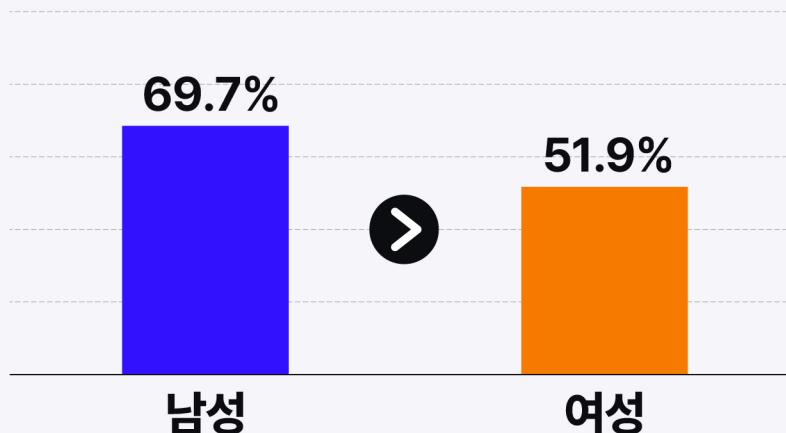
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육아정책연구소는 만 25~49세 대한민국 국민  
2,011명을 대상으로 **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**을 조사하였습니다.



본 카드뉴스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202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
「결혼·출산·양육 인식조사 연구(김지현, 배윤진, 김문정, 2024)」 결과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# 한 사람 인생에서 자녀는 꼭 있어야 할까?

## “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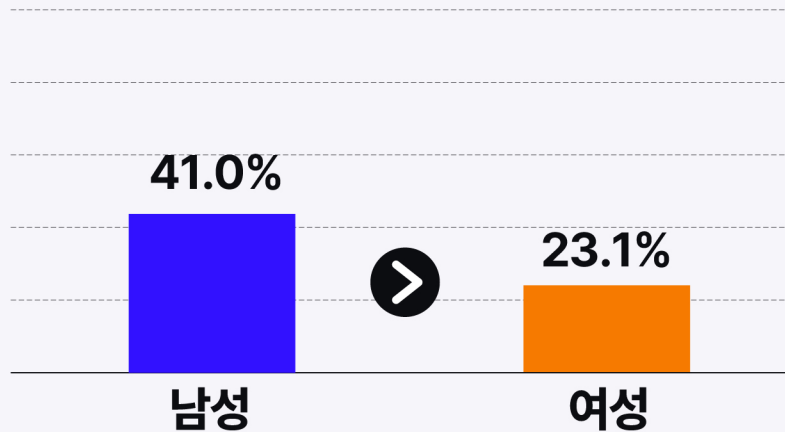
본 카드뉴스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202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
「결혼·출산·양육 인식조사 연구(김지현, 배윤진, 김문정, 2024)」 결과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무자녀

# 지금 자녀가 없다면, 앞으로 아이를 낳을 생각은?

“앞으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다”

(미혼, 기혼 무자녀 대상)



## ▼ 기혼자들의 생각은?

낳을 생각이  
있다

42.4%



34.1%

낳지 않을  
생각이다

본 카드뉴스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202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
「결혼·출산·양육 인식조사 연구(김지현, 배윤진, 김문정, 2024)」 결과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무자녀

# 자녀계획이 없는 이유?

## “막연하고 불안해요”

(1+2+3순위 응답)

1순위

2순위

3순위

68.7%

50.1%

46.4%

임신, 출산,  
양육이 막연히  
어려울 것 같아서

자녀 양육 비용이  
부담되어서

아이가 행복하게  
살기 힘든 사회여서

- 주: 1)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 1~3순위를 응답하여, 1+2+3순위를 합산한 결과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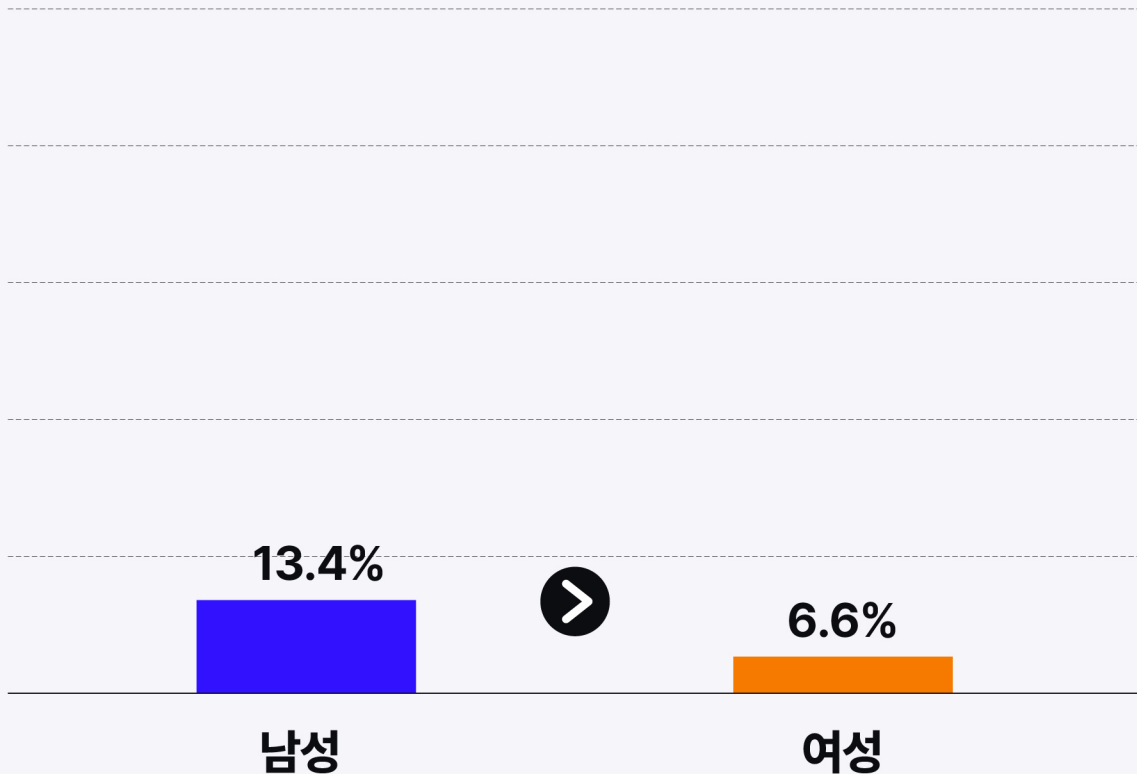
2) 상위 3개 응답임.

본 카드뉴스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202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「결혼·출산·양육 인식조사 연구(김지현, 배윤진, 김문정, 2024)」 결과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유자녀

# 자녀가 있다면, 앞으로 더 아이를 낳을 것인지?

## “추가 출산 계획 있다”



본 카드뉴스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202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
「결혼·출산·양육 인식조사 연구(김지현, 배윤진, 김문정, 2024)」 결과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유자녀

# 추가 자녀계획 없는 이유?

## “현실적인 부담 때문”

(1+2+3순위 응답)

1순위

2순위

3순위

58.0%



자녀 양육비용이  
부담되어서

53.5%



자녀양육이 어렵게  
느껴져서

25.8%



나이가 많아서

-주: 1)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 1~3순위를 응답하여, 1+2+3순위를 합산한 결과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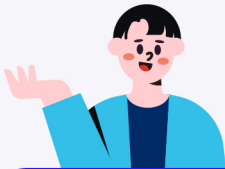
2) 상위 3개 응답임.

본 카드뉴스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202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「결혼·출산·양육 인식조사 연구(김지현, 배운진, 김문정, 2024)」 결과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유자녀

# 00이 변한다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있다?

1순위 30대 유자녀 남녀의 생각은?



남성

소득이  
좀 더 많다면



여성

재택근무가  
가능하다면

본 카드뉴스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202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

「결혼·출산·양육 인식조사 연구(김지현, 배윤진, 김문정, 2024)」 결과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

유자녀

# OO이 변한다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있다?

1순위 40대 유자녀 남녀의 생각은?



남성

소득이  
좀 더 많다면



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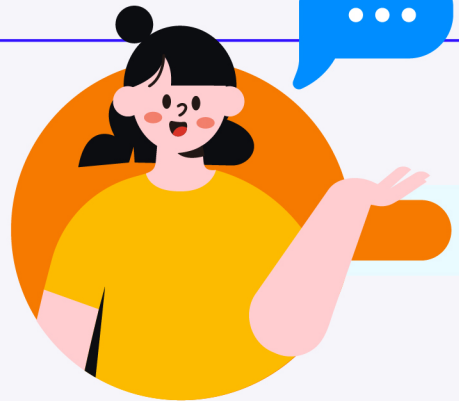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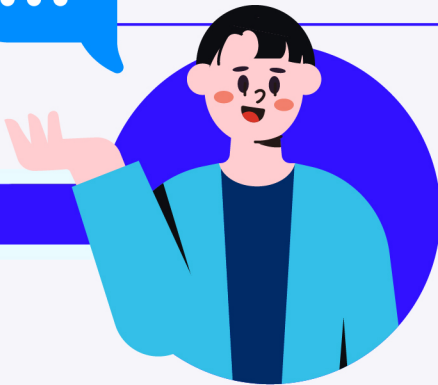
육아휴직이나  
단축근무를 하여도  
급여가 충분하다면

본 카드뉴스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202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

「결혼·출산·양육 인식조사 연구(김지현, 배윤진, 김문정, 2024)」 결과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

더 자세한 연구결과는  
**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 
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**



육아정책연구소  
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